

시인과 전사의 충돌, 1948년 『中國新詩』 논쟁*

김소현**

<目 次>

1. 서론
2. 본론
 - 1) 『中國新詩』의 창간과 의미
 - 2) 『中國新詩』를 둘러싼 논쟁
3. 결론

1. 서론

올해는 『중국신시中國新詩』 창간(1948년)에서 시작된 ‘구엽시파 九葉詩派’ (‘중국신시파’)의 활동이 70주년을 맞는 해다. 정민(鄭敏 1920—) 시인을 제외한 여덟 명의 시인이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구엽시파’는 중국 현대시의 역사에 깊은 발자국을 남긴 유파로 인정받고 있다. 애초 조직적 문학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유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이념과 예술적 이상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간주되었던 ‘중국신시파’는 국공의 군사적 대립과 1949년 이후의 정치투쟁이 낳은 희생자들이었다. 그들은 문학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지도, 시대의 아픔과 고난을 회피하지도 않았지만 긴박한 현실 문제를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고담준론(高談峻論)을 일삼는 자들로 비난받았다. 스스로 ‘올바른 사상의식’을 소유하고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1) ‘구엽시파 九葉詩派’는 1981년 『구엽집 九葉集』의 출판 이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다. 그러나 ‘구엽시파’의 문학사적 출발은 1948년 『중국신시 中國新詩』 창간으로 소급되며 이를 근거로 ‘중국신시파’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있다고 확신했던 좌파 시인들의 관점에서 ‘중국신시파’는 세계관과 창작방법에 있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 자들이었다. 사실 그들의 비판은 유과적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중국신시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민주와 개인의 자유, 문학예술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일체의 자유주의적 경향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전반적인 거부였던 바,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사상의식’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사상개조’와 ‘의식개조’로 나아가야 했다.

인간의 의식성을 세계 변혁의 동력이라고 믿었던 마오주의적 전통에서 기인한 이 같은 확신은, 옌안(延安) 시기 게릴라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중앙집권적인 조직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게릴라전 상황에서는 공통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헌신과 공통의 사유방식(또는 행동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²⁾ 『중국신시』를 둘러싼 일련의 논쟁은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중국신시파’의 문학적, 사회적 입지를 극단적으로 축소시키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 ‘중국신시파’와 ‘칠월시파 七月詩派’간 대결 양상을 빚게 된 1948년의 상황은 문예의 도구화 주장과 그에 맞서는 논쟁으로 치닫게 되지만 국민당의 억압적 문예정책으로 돌연 중단되고 말았다.

1948년의 논쟁은 1943년 이래 국통구에서 전개된 현실주의 문제에 대한 토론과 연관된 것으로, ‘옌안문예강화’에서 제기된 현실주의 창작 원칙을 국통구 창작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기도 했다.³⁾ ‘옌안문예강화’ 이래 중국공산당의 ‘정치제일’주의는 불가역적이며 통일된 문예 지침으로 ‘칠월시파’ 시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데 반해 국민당의 억압적 문예정책과 정치적 실패는 국통구 문예계의 강력한 반(反)정부 정서와 함께 자유주의를 고조시키고 있었다. 국공내전이 지식계의 좌우파간 대립을 가속화시키면서 자유주의는 우파 못지않게 공산당의 전체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사고로 간주되었는데,⁴⁾ 좌우파를 가

2)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1』 78-79쪽 참조. 서울, 이산, 2004년.

3) 당시 국통구에서는 후평(胡風)의 ‘주관전투정신’에 관한 토론, 『청명전후 清明前後』 『방초천에 芳草天涯』에 대한 평가, 정치와 문예의 관계에 대한 토론이 1948년까지 지속되었다. 윤유민 지음, 김수영 옮김, 『현대 중국의 현실주의 문학사』 225-241쪽 참조.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1년.

리지 않는 지식인의 비판적 사고는 전쟁 수행 과정은 물론 정국 장악 이후의 새로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근본적 불씨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실제 전쟁만이 아니라 치열한 사상적 내전을 동시에 치러야 했던 젊은 시인들의 의기와 불운에 대한 간략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선전전(宣傳戰)의 정치적 목적 하에 악의적인 인신공격도 불사했던 좌파의 맹목이 사상과 문예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젊은 시인들의 열정까지 소멸시킬 수는 없었지만 공산당의 승리는 논쟁 과정에서의 모든 의미 있는 주장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시인의 자격은 물론 인간적인 자질까지 의심받으며 불우한 청장년을 보내야 했던 시인들이 '구엽시파'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의심할 나위 없는 역사의 필연일 터이나, 70년의 세월이 바꾸어놓은 그들의 위상과 의미를 되짚어 보는 일은 결코 무가치하지 않을 것이다.

-
- 4) 19세기 서양 정치·철학 사조로서의 자유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거시 경제적·윤리적 폐해가 드러나면서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다양한 사상적 조류와 뒤섞이는 '수정' 추세를 보이게 된다. 미국의 듀이식 민주-자유주의, 영국의 페이비언식 사회-자유주의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20세기 전반 전 세계는 각양각색의 사회주의가 대세를 이룬 반면 자유주의는 끊임없는 자기 수정과 퇴보 속에서 애매한 태도를 드러낸다. 5.4시기에 유입된 중국의 자유주의는 다분히 수정된 형태의 것으로 영국의 페이비언주의 사상가 헤럴드 래스키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조화시키려는 래스키의 이론은 뤼룽지(羅隆基), 왕짜오스(王造時), 추안평(儲安平), 장권마이(張君勱) 등에 의해 적극 수용되어 중국을 자유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데 활용되었다. 그러나 근대 중국의 자유주의는 급진적 혁명적 인민주의와의 경계도 불분명했다. 중국의 자유주의자들은 학문적 원리가 아니라 현실적 사회 문제에 자극을 받아 자유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론적 차원이 아닌 운동의 측면에서 그들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40년대에 급성장한 중국의 자유주의는 후스(胡適)가 대표하는 '관념형 자유주의' 그룹과 뤼룽지, 장권마이, 왕짜오스 등이 대표하는 '행동하는 자유주의자'들로 구별되는 바, 관념적 자유주의자들이 사상문화 영역에 치중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선호한 반면 행동형 자유주의자들은 전체적인 사회정치 개혁 방안을 사고하고 독립적으로 당을 조직하는 데 열을 올렸다. 1941년 결성된 중국민주정치단체동맹(약칭 민주동맹)은 자유주의의 조직화가 실현된 구체적 성과였다. 쉬지린(許紀霖) 지음, 송인재 옮김, 『왜 다시 계몽이 필요한가』 제2부 '근대 중국의 사상적 전통' 참조. 서울, 글항아리, 2013년.

2. 본론

1) 『中國新詩』의 창간과 의미

8년에 달하는 중일전쟁은 2차 세계대전의 갑작스러운 종결과 함께 끝났다.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인들의 오랜 갈망을 실현하기 위해 장제스와 마오쩌둥은 1945년 8월 28일 충칭에서 만나 연합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10월 10일까지 아홉 번의 논의가 계속되었고, 1946년 1월에 소집된 정치협상회의는 헌정(憲政)과 군사 지휘권 통합, 국민대회 개최, 군사 감축 등에 관한 합의에 다가섬으로써 진정한 평화와 정치적 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특히 국공 양당에 버금가는 '제3당'의 규모를 갖춘 민주동맹의 중간노선은 영미식 의회민주주의와 소련식 사회주의적 평등 원칙을 참조한 개혁 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인민주의의 심각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기층의 경제적 평등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였다.⁵⁾

그러나 이 과정에도 여전히 전국 각 지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간 군사 충돌이 계속되고,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가 정치협상회의의 합의 사항을 반복하면서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은 다시 요원해졌다. 국민당은 공산당과 민주동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새로운 헌법에 명시한 내각제가 아닌 장제스의 총통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광범위한 지방자치 허용 계획도 백지화했다. 공산당과 민주동맹은 강력 반발했지만, 국민당은 1946년 말 단독으로 국민대회를 소집하고 좌파와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민주당과 지식인이자 준엄한 국민당 비판자로 주목 받던 시인 원이뉘(聞一多)의 암살은 이 시기 국민당 탄압의 대표적 사례였다.

정전을 위한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의 만주 공격 계획과 공산당의 변구(邊區) 해체 거부, 군대 조직 재편 및 지배지역에서의 토지개혁 강화 등으로 국공의 대립은 고조되었다. 특히 거대한 인구와 일제가 남긴 산업 기반, 광활한 토지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만주를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민당과

5) 위의 책 278-279쪽 참조.

공산당은 1947년 초부터 다시 본격적 내전에 돌입했다.

국공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못지않게 정국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날로 극심해지는 인플레이션이었다. 1945년 가을 이후 국민당 정부는 일본인과 친일협력자들의 자산 처리에 있어 심각한 부정과 혼란을 초래했고, 방위산업 감축 및 군사 동원 해제로 인한 대규모 실업, 만주괴뢰정권 통화(通貨) 변제 및 통화가치의 지역별 격차를 이용한 투기 등으로 상하이 등지의 도매물가가 폭등했다. 급격한 물가 상승은 도시민들의 삶을 위협했고 거대 산업노동자들이 밀집된 상하이, 텐진, 우한, 광저우 등지에서는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노동운동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군사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암울한 전망으로 바뀌었으며 양당 간의 사상 대립 또한 격렬해졌다. 문예계의 보편적 주제였던 항일(抗日)은 국민당의 실정과 장제스의 독재에 반대하는 반장(反蔣)과 계급투쟁, '혁명의 외침과 전투의 호각'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바로 이 같은 시점에 창간된 『시창조 詩創造』(1947년 7월)는 정치적 성향이 상이한 시인들의 작품과 평론을 광범위하게 게재하면서 처음부터 분열과 대립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시창조』는 1946년 차오신즈(曹幸之, 즉 杭約赫), 린홍(林宏), 하오토허(郝天航) 등이 설립한 성군출판사(星群出版社)를 모태로 한 것이었다. 차오신즈와 린홍이 편집을 담당하여 많은 시인들의 창작시와 번역시, 평론 등을 게재했다. 그러나 원고 선택에 있어서 예술적 기준을 우선시하고 포어 구호화에 반대했던 차오신즈에 비해 린홍은 잔혹한 현실 속 시의 전투성을 강조했다. 출판사의 설립과 『시창조』 창간에 직접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쟁커지아(臧克家) 역시 린홍의 주장을 지지했다.⁶⁾ 『시창조』에는 100명이 넘는 작가와 시인들이 작품을 발표했고 소네트나 서정 단시는 물론 산가(山歌)와 민요, 정치풍자

6) 쟁커지아의 시에 비판적이었던 칠월파 시인들이 처음부터 이 같은 편집 방향에 불만하며 협력을 꺼려했던 데 비해 대부분의 국통구 시인들은 적극적으로 작품과 평론을 발표했다. 『시창조』의 핵심작가는 기본적으로 쟁커지아와 교류하며 그의 영향을 받은 청년 시인들(그중 일부는 중공당원이거나 정치사상적으로 중공의 영향을 받아 혁명현실주의와 시의 대중화를 주장했다)과 차오신즈와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 기고하게 된 시인들(대부분 1940년대 중후기 대학생들로 서구 모더니즘 시의 영향을 다양하게 받았다)로 양분된다. 錢理群, 「1948年: 詩人的分化」, 『文學理論研究』(1996년 4期) 37쪽, 上海, 中國文藝理論學會, 1996년.

시 등을 망라했다. 『희망 希望』의 정간(1946)으로 진지를 상실했으나 다시 『흙 泥土』을 창간하고 『호흡 呼吸』 『개미 螞蟻小集』 등을 출판하면서 정치와 문학적 신념을 공유했던 '칠월시파'에 비해 『시창조』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파벌적 특성과 포용적 태도를 지향했던 것인데,⁷⁾ 국통구의 삼엄한 언론 통제를 비껴가기 위한 방편이자 독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시창조』의 이 같은 편집 원칙은 좌파 작가들의 불만과 비판을 불러 올 수밖에 없었다. “영혼과 예술을 통치계급에게 팔아넘기고” “타인의 정신을 마비시킨 문예계의 사기꾼 선총원(沈從文)에 대한 원색적 비난⁸⁾으로 시작된 공격은 편집자(차오신즈)의 소극적 대응으로 더욱 격화되었다. 무엇보다 좌파는 『시창조』의 불분명한 정치색과 “신성한 전투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경향을 강하게 질타했지만⁹⁾, 편집자는 오히려 “시의 정치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관점에 우리가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누구라도 예술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고 진실한 정감을 표현하는 시를 쓸 수 있다면 그들이 어떤 풍격의 깃발을 흔들건, 어떤 형식의 무기를 사용하건(상처나 모욕을 주는 몰래 쓴 화살만 품고 있지 않다면) 상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이 함께 모이기를 원한다”¹⁰⁾며 편집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제4기에는 다시 텐젠(田間)과 쟁커지아 시의 “거친 아름다움”을 옹호하고 “작금의 전투적 시대정신과 통일되지 않는” 위엔커지아(袁可嘉)를 비난하는 글

7) 『詩創造』는 처음부터 “하나의 구호나 표방, 또는 장렬한 운동을 욕망하지 않으며” “얼마간의 힘과 작은 열정으로 詩友들에게 작품을 발표하고 시를 연구할 수 있는 이 작은 화원을 여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밝혔다. 『詩創造』 第1期 「編余小記」(1947), 『“九葉詩人”評論資料選』 355쪽, 上海, 1996년.

8) 『泥土』 3輯(1947)에는 ‘初犢’라는 필명이 사용된 「문예계의 사기꾼 선총원과 그의 무리들 文藝騙子沈從文和他的集團」이라는 글이 실렸다. 이 글은 선총원에 대한 비난과 함께 그의 ‘앞잡이’로 지칭된 청년 시인 위엔커지아(袁可嘉), 민(鄭敏) 등에 대한 조롱도 서슴지 않았다. “현실 앞에 고개 숙이고 무력하며 게으르고, 냉정하게 죽음을 견디는 노예적 순종을 추구”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이처럼 길가에 쌓인 똥 덩어리를 쓸어내고 死亡主義와 퇴폐주의의 유독한 꽃을 잘라버려야 한다”고 비난했다. 錢理群, 「1948年: 詩人的分化」, 『文學理論研究』(1996年 4期) 37-38쪽에서 재인용.

9) 許沽泯, 「勇于面對現實」, 『詩創造』 第2期(1947), 錢理群, 「1948年: 詩人的分化」, 『文學理論研究』(1996年 4期) 38쪽에서 재인용.

10) 「編余小記」, 『詩創造』 第2期(1947), 『“九葉詩人”評論資料選』 356쪽.

이 게재됨으로써 『시창조』가 직면한 내외부적 불만을 확인하게 할 뿐이었다. 편집자 역시 물러서지 않고 민주를 쟁취하기 위한 분투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전유물일 수 없으며 “최소한 시를 쓰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민주’를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식할 것 같은 정치 현실 속에서 ‘북소리’나 ‘나팔소리’만이 아니라 ‘낮음 울음’과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야만 독자들을 ‘지옥’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¹¹⁾

이러한 압박 속에서 서구 모더니즘과 중국 현대시의 결합 가능성을 실험하는 젊은 시인들의 역량이 집결되고 있었다. 탕치(唐祈), 탕스(唐湜), 천진룽(陳敬容), 신디(辛笛), 무단(穆旦), 정민(鄭敏), 위엔커지아, 두윈세(杜運燮) 등이 역동적인 이론과 창작을 내놓고 있었던 것이다.

위엔커지아는 ‘시의 극화 新詩戲劇化’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있었고 탕스는 당시 시단을 주도하는 두 개의 주요 세력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것은 T.S. 엘리엇과 스펜서를 사숙하고 내향적이며 중후한 기질을 바탕으로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주력한 무단과 두윈세 등 “일군의 자각적 현대주의자”들, 그리고 루쉰(魯迅)의 니체주의적 정신을 사숙하고 생활로부터 시로, “비자각적인 신시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는 뤼위엔(綠原) 등이었다. 탕스는 궁극적으로 이 두 개의 상이한 경향이 상호보완적으로 합류하여 ‘시의 신세대’가 요구하는 자연스럽고 자각적인 현대화운동으로 발전해야 함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창조』가 특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역설했다.¹²⁾ 이에 호응하듯 『시창조』는 1948년 4월 “번역 특집호”를 내면서 릴케, 엘리엇 등 서구 모더니즘 시인을 집중 소개했고, 이어서 “시론 특집호”를, 다시 “시의 현대성”문제와 “종합”적 현대시의 이상 건립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개의 상이한 경향은 결코 하나로 합류될 수 없었다. 젊은 시인들의 ‘반역적’ 실험에 강한 불만을 표했던 좌파 시인들은 더 이상 『시창조』를 공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좌파의 편협성과 비관용적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던 젊은 시인들 역시 상호보완적 합류 가능성을 회의하기 시작했다. 젊은 시인들에게 ‘시정잡배 市儈主義’, ‘유미파 唯美派’ 같은 꼬리표가 붙는 지경에 이르자 차오신즈는 큰 부당

11) 『編余小記』, 『詩創造』 第5期(1947), 『“九葉詩人”評論資料選』 358쪽.

12) 唐湜, 『詩的新世代』, 『詩創造』 第8期(1948), 『“九葉詩人”評論資料選』 29쪽.

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편집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했던 그는 특히 비난의 화살이 짙게 쏟아지자 집중되면서부터 '항위에허 杭約赫'라는 자신의 필명을 사용하며 불만에 대응했지만 결국 12기를 마지막으로 편집에서 손을 떼게 된다.¹³⁾

그렇게 『시창조』를 떠난 시인들은 1948년 6월, 상하이금성은행(上海金城銀行) 신탁부 주임 신디의 대출 협조를 받아 자신들만의 『중국신시 中國新詩』를 창간한다. 제1집은 신디, 차오신즈, 천징룽, 탕스, 탕치 등이 편집을 담당했다. 삼림출판사(森林出版社)라는 새로운 출판사가 잡지를 출판했지만 그것은 국민당 특무의 주목을 피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 삼림출판사는 이름을 바꾼 성군출판사(星群出版社)였다.

『중국신시』의 편집자와 번역자 대부분은 대학 교원이나 학생, 작가 또는 문화사업 종사자들이었다. 외국문학 전공자도 적지 않았다. 독자들 역시 시를 애호하는 지식인이나 학생들이었다. 『시창조』의 게재 범주가 광범위한 대신 원고 선별 기준이 다소 무원칙하고 낮았다면, 『중국신시』는 범주는 좁았으나 원고 선택의 기준을 높일 수 있었다. 『중국신시』는 창간에서 폐간까지 총 5집을 출판했을 뿐이지만 100편에 달하는 장단시(長短詩)와 연작시를 게재하면서 점차 새로운 시 유파로서의 특징을 갖추게 된다. 그것은 “자기 시대에 대한 충실한 관찰과 감수, 그리고 자기 내면의 시 예술에 대한 성실함이 진실한 노력을 통해 개척한 새로운 시의 길”이었으며 “동시대의 일부 시들에 비해 함축적이며 내면의 발굴을 중시”하면서도 “현실생활에 다가서고 개인적 감수에 충실하며 인민의 감정과 상통하기 위해 힘쓰고” “지성과 감성의 조화, 상징과 연상의 운용, 환상과 현실의 상호침투, 활발한 상상과 참신한 이미지에 기탁된 사상 감정, 부각 및 대비를 통한 총체적 효과 등으로 시의 두께와 밀도, 韌性和 彈性을 강화”한 것이었다.¹⁴⁾

무엇보다 『중국신시』는 경향을 달리하는 좌파의 압박으로부터 젊은 시인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독립적 진지였다. 암울한 현실 속 엄중한 시의 사명을 자각하면서 교조화 된 신념의 거친 분출을 거부하고, 이성적으로 현실 가운데 내재된 복잡한 모순의 실마리를 풀어가며 미적으로 승화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시인들의 의지

13) 曹辛之, 「面對嚴肅的時辰—記『詩創造』和『中國新詩』」, 『“九葉詩人”評論資料選』, 370-371쪽.

14) 袁可嘉, 『九葉集』序, 『九葉集』4쪽, 江蘇人民出版社, 江蘇, 1981년.

가 『중국신시』에 표출될 수 있었다. 『중국신시』는 ‘현대적인 시’들을 게재함으로써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감정의 표출, 천편일률적인 전개, 공식화된 묘사에 염증을 느끼던 독자들의 환영을 받았고 암울한 국통구 시단에 신선한 바람을 실어 왔다.

『시창조』가 『중국신시』로 분화되기 전 몇 달 동안의 대립 양상이 1948년 3월 이후 더욱 분명해진 것도 이들의 독자적인 행보를 재촉하는 원인이었을 것이다. 위엔커지이는 당시 유행 중인 “인민파”의 시에 관한 “미신迷信”을 “격정에 대한 과도한 열중”, 즉 시가 “열정의 산물”이라는 그릇된 믿음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적 하면서 그들의 정형화된 감정처리인 “구호화” “공식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가 “직접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미신” 또한 시의 효능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왜곡”하는 본질적인 오류라는 것이다.¹⁵⁾ 그러면서 위엔커지이는 “현실” “현학” “상징”의 “종합”으로서의 “현대시”를 제시하였다. 이는 시를 정치와 동일시하거나 정치의 무기로 보는 관점의 허황함, 시의 예술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정하는 자기 기만적 태도, 시의 내재적 요소가 아닌 허구적 인기나 시류의 편승 여부 등으로 우열을 감별하는 잘못된 비평 관행, 자아와 외부세계의 상대적 독립을 허용하지 않는 독재적 사고, 저속하고 천박한 산문화를 해방으로 오해하는 자유시의 무정부 상태, 순수한 문학적 표준에 입각하지 않은 시에 대한 가치평가 등을 비판했던 「시의 현대화 新詩現代化」¹⁶⁾에 비해 사변적인 서술의 모호함을 극복한 것으로, 더욱 강력하고 직접적인 비판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중국신시』의 적극성과 전투성이 강화된 것만큼이나 편집진이 교체된 『시창조』의 형식과 내용도 달라졌다. 1948년 7월에 나온 『시창조』는 햇불과 거문고를 든 평화의 여신으로 표지를 장식했다. 과거의 “포용”적 편집 방침이 진영 내부의 혼란과 작전 방식의 불일치를 초래한 이상 향후에는 “하나의 전투의지”와 “하나의 작전목표” 하에 “현실을 강렬하게 반영한 작품”에 최대한 지면을 할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하며 “명쾌하고 소박하며 건강하고 힘 있는” 예술을 추구함으로써 “지식인의 습성과 생활을 탈피”할 것이었다.¹⁷⁾ 결국 다양성

15) 袁可嘉, 「對於詩的迷信」, 『文學雜誌』第2卷 第11期(1948), 『論新詩現代化』62쪽, 三聯出版社, 北京, 1988년.

16) 袁可嘉, 「新詩現代化」, 『大公報·星期文藝』(1947년), 『論新詩現代化』3-9쪽.

으로 인한 불협화를 피할 수 없었던 주장들은 최종적으로 '지식인 개조'라는 절대적이고 일치된 주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 시대의 수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결론'지어졌다.¹⁸⁾

아이러니한 사실은 1년 이상 국민당 특무의 감시를 피해 살인적인 인플레이 속에 서도 중단 없이 잡지 발행을 이어오던 상황이 『시창조』의 급진적 방향 전환으로 인해 결정적인 위기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천둥소리 第一聲雷' '토지편 土地篇' '용감한 인간으로서 做個勇敢的人' '분노의 비수 憤怒的匕首' 등의 부제에서 드러나는 전투적 분위기는 『시창조』에 대한 당국의 의심에 불을 지폈고, 결국 1948년 11월 『중국신시』와 『시창조』가 동시에 압수 수색을 당하면서 두 잡지가 모두 폐간되고 만 것이다. 설립 이후 엄혹한 백색테러의 위협 속에서 3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성균출판사 역시 폐쇄되었고 차오신즈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황급히 타지로 도피해야 했다.

2) 『中國新詩』를 둘러싼 논쟁

그렇다면 좌파 문인들은 진영 내부의 사상적 대치를 강화하고 정치 성향을 명확히 하는 데 대한 위협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일까?

『중국신시』와 『시창조』의 창간 및 편집에 누구보다 깊숙이 개입했던 차오신즈의 회고에 따르면 잡지 발행과 편집에 공산당원 작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상하이 지하당 문화위원회 위원 장텐여우(蔣天佐)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그는 『시창조』가 내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시대적인 요구라는 대원칙에 부합한다면 서로의 상이한 예술적 애호를 허용하고 고무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차피 여러분의 투쟁 목표가 미제국주의자와 장제스 반동파에 맞서는 것이라면 모두의 입장이 일치한 것인데 어찌 예술적인 애호와 견해차 때문에 다툴 수 있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이다.¹⁹⁾ 그러나 이것이 당의 공식적 견해였는지 장텐여우 개인

17) 曹辛之, 「面對嚴肅的時辰—記『詩創造』和『中國新詩』」, 『九葉詩人』評論資料選 371쪽 참조.

18) 錢理群, 「1948年: 詩人的分化」, 『文學理論研究』(1996年 4期) 40쪽.

19) 曹辛之, 「面對嚴肅的時辰—記『詩創造』和『中國新詩』」, 『九葉詩人』評論資料選 376쪽.

의 생각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중일전쟁이 종결되고 중국의 국내 정치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1945년 가을 이후의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시기는 민주동맹의 세력 결집이 국공 정치협상의 무게 중심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다. 뤼룽지(羅隆基), 장권마이(張君勱), 왕짜오스(王造時), 추안평(儲安平) 등 행동하는 자유주의자들은 후스(胡適) 등 관념형 자유주의자와 다른 모습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관념형 자유주의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업과 수입을 기반으로 주로 도시 지식인이 느끼는 정치적 부자유에 관심을 가졌던 데 반해 행동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의 사회적 공정과 경제적 평등 같은 문제에 주목하면서 인민주의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기층의 경제적 평등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영미식 의회민주주의 정치를, 경제적으로는 소련식 사회주의적 평등 원칙을 참조하려 했던 바, 민주동맹은 결성 초기부터 항전 승리까지 단 4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여 주요 도시로 퍼져나갔고, 국공 양당에 버금가는 '제3당'으로 성장하여 정치적 세력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저울추 같은 존재가 되었다.²⁰⁾

안타깝게도 국공의 분열과 잇단 내전으로 폭력이 이성적 대화를 대체하면서 자유주의의 생존 공간은 사라지고 말았다. 1947년 민주동맹의 강제 해산으로 중국 자유주의 운동은 짧은 번영을 마감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운동의 과정에서 분명 여론의 주도권을 잡았을 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중심으로 운동을 조직화하고 제도적 보장의 범주를 확장시켜 갔다. 민주동맹은 국민당의 대안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바로 이 점에서 어쩌면 공산당의 미래 경쟁자로 간주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중국 사회의 모순을 파악하고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자이자 그것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도 있는 지적 역량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국민당과 공산당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1948년 초 중국에는 자유주의의 비장한 마지막 한 줄기 빛이 비쳤다. 전국적으로

20) 쉬지런 지음 송인재 옮김, 『왜 다시 계몽이 필요한가』, 265-279쪽 참조.

로 영향력을 발휘했던 『대공보 大公報』가 연이어 사설을 발표하여 ‘자유주의자의 신념’ ‘자유주의자의 시대적 사명’ 등을 논하면서 공개적으로 자유주의의 깃발을 올렸다. 『관찰주보 觀察週報』 역시 자유주의를 고취하고 베이핑(北平)의 유명교수들도 ‘정치의 제도화, 제도의 민주화, 민주사회화’에 대한 주장을 내놓았다. 이전의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나 사회주의의 깃발을 내걸며 자유주의적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었다.²¹⁾

1947년과 1948년 『대공보』에 위엔커지아의 시론이 집중 발표되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시의 현대화 詩的現代化」를 비롯한 주요 시론을 이 시기 『대공보』에 다수 발표²²⁾하여 좌파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중도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시를 정치의 “무기”나 선전의 “도구”로 제한하는 것²³⁾, “민주를 협소한 정치 제도의 하나로 간주”할 뿐 전면적인 “문화 모델이나 내재적 의식형태”로 간주하지 않는 것, “서로 다름 속에서 조화를 구하지 않는 것”은 정치의 “민주”를 주장하는 좌파의 심각한 비(非)민주성을 증명할 뿐이라고 했다. 결국 정치적 민주성은 시의 민주로 확인되어야 하는 바, “좋은 시”란 “민주적 습관과 민주적 의식” 위에 수립된 것이며 그 자체로서 민주적 가치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대화”된 시를 쓴다는 것은 시인의 “민주적 의식”에서 출발하여 “내용을 갖춘 민주적 완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은 민주적 추구 과정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시인이 진정 민주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현대시”를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⁴⁾

그러나 자유사상의 가치를 내걸고 개인과 생명본위를 강조하며, 관용을 주장하고 투쟁을 반대하는 경향을 극도로 경계했던 좌파는 그것이 사실상 ‘예술을 위한 예술’의 영역으로 문예를 되돌리려는 기도일 뿐이라고 단언하면서²⁵⁾ 자유주의적

21) 위의 책, 282-283쪽 참조.

22) 袁可嘉는 1947년 1월부터 1948년 10월까지 9편의 글을 『大公報·星期文藝』에 발표했다.

23) 袁可嘉, 「新詩現代化」, 『大公報·星期文藝』(1947), 『論新詩現代化』 5쪽, 三聯書店, 北京, 1988년.

24) 袁可嘉, 「詩與民主」, 『大公報·星期文藝』(1948), 『論新詩現代化』 41-42쪽.

25) 邵荃麟, 「對於當前文藝運動的意見」(『大眾文藝叢刊』), 藍棣之「堅持文學的本身價值和獨立傳統」에서 재인용, 袁可嘉, 『論新詩現代化』 233쪽.

문에 주장 및 자유주의 자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직적 대응을 전개한다. 1948년의 논쟁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점을 제시하기보다는 적과 편을 나누어 상대를 모욕하고 공격함으로써 당파적 이해를 관철하는 데 주력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누구나 쓸 수 있고” “전사들이 쉽게 기억하고” “전사들의 문화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총대 시 槍杆詩’의 필요를 망설임 없이 주장했다. 쉽고 전투적인 시는 과거 소수의 간부나 적극분자에게 한정되어 있던 “선전선동”의 업무를 “누구나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잘 몰랐던 글자를 학습”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시의 효용은 정치선전과 절대로 무관할 수 없었다. 심지어 쟁커지아의 『흙의 노래 泥土的歌』조차도 “지주의 죄악”이나 “농민의 원한과 항쟁”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²⁷⁾ 중국의 농촌과 농민에 대한 깊은 애정 속에 시를 썼고 문단과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쟁커지아의 성취를 이런 식으로 폄훼했던 것 역시 민주동맹의 맹원이었던 쟁커지아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화끈한 계급투쟁의 현장”인 농촌의 “선명한 계급적 원한과 계급적 우애”를 노래한 리지(李季)의 「왕구이와 리상상 王貴與李香香」을 마땅히 따라야할 시적 모범으로 제시한다.²⁸⁾ 국통구는 억압과 피억압, 착취와 피착취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구사회, 구제도”이며 국통구 시인은 “인민과의 결합”과 “자기 개조”의 기회를 상실한 반면 해방구는 억압과 피억압, 착취와 피착취가 사라진 “신사회, 신제도”로 해방구 시인은 “군중과 긴밀히 결합하고 자신을 개조”하여 “가장 완벽한 서사시 「왕구이와 리상상」이 탄생할 수 있었다²⁹⁾는 식이다.

그러므로 『중국신시』는 “상하이의 쓰레기를 망라하고 베이핑 ‘선총원 집단’의 정수를 흡수”한 “남북대야합”이자 “베이핑 반동문화집단의 대표 선총원”과 “상하이 집단의 천징룡”이 낳은 “사생아”³⁰⁾일 뿐이며, 『중국신시』의 성원들은 “자산계급 지식인의 우월감과 영웅숭배사상”에 빠져 “현실사회에 대한 착각과 인민에 대한

26) 新華社 「部隊政治工作新武器—華中創“槍杆詩”運動」, 『人民日報』(1948년 1월 31일)

27) 默涵, 「評臧克家的“泥土的歌”」, 『大眾文藝叢刊』第1集 『文藝的新方向』, 1948년.

28) 상동.

29) 力揚, 「論敘事詩」, 『新詩歌叢刊』第8集 『被壓迫的行列』, 1948년.

30) 張羽, 「南北才子才女的大會串一評“中國新詩”」, 『新詩潮』第3集, 1948년.

의도적인 왜곡과 멸시”를 드러내면서도 “자기 주변의 길거리, 빈민가, 공장, 농촌에서 고군분투하는 살아 있는 인민”을 거들떠보지 않고 “작가와 인민은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개인영웅주의자”³¹⁾일 뿐이다. 이 같은 비판은 논리적 주장이라기보다 악의의 제동 없는 폭주, 적대감을 거침없이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혐오 발언처럼 느껴진다.

그들이 『중국신시』를 그토록 혐오했던 까닭은 무엇보다도 “이처럼 선명하고 열렬한 투쟁현실을 마주하고도 “나는 나의 시를 쓰면” 그뿐 “나는 정치외는 상관없다”는 태도로 “T.S. 엘리엇을 떠받들고” “호화로운 언어로 쓴 시들을 떠받들며” “중국에 다른 시는 아예 없는 것처럼”³²⁾ 하기 때문이었겠지만, 중일전쟁과 내전의 포화 속에서도 대학 교육과 도시인의 생활을 유지했던 ‘중국신시’파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이 복잡하고 뒤틀린 심리로 귀결된 탓이기도 했을 것이다. ‘중국신시’파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내향적이고 엄숙”한 기질을 바탕으로 “개성”을 표현하고 관찰하는 데 몰두하면서 “자아와 세계의 형평 추구하고 파괴 사이에서 영원히 갈등”하는 “현대적 햄릿”들은 뤼위엔 등 ‘칠월파’의 “돈키호테”적 기질³³⁾과 크게 달랐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과감히 세상 속으로 돌진했던 돈키호테들은 햄릿의 갈등을 이해하지도, 봐 주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신시’파의 대응은 감정적 요소를 가능한 배제하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애쓰는 양상이다. 하지만 자신의 지성과 시적 성취,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의 각성을 자부했던 그들 역시 반대파의 허술한 논리와 판에 박힌 구호(口號), 인격 모독에 가까운 거친 비방에 신물이 난 상태였다. 그들과 직간접적인 사승관계를 맺고 있었던 선충원과 귀모뤄(郭沫若)의 해묵은 감정대립³⁴⁾이 『중국신시』 성원들에 대한 이 같은 비난의 또 다른 원인이었음을 모르지 않았던 그들은, 중국 현대시의 혁신을 위한 창작적 실

31) 諸葛瘋, 「從「旗」看「穆旦」和一些「穆旦」們」, 『文藝』第5號, 1948년.

32) 沙鷗, 「一個對比—關於袁可嘉及第二年度的“詩創造”」, 『新詩歌叢刊』第10集『顆顆送給子弟兵』, 1948년.

33) 唐湜, 「詩的新生代」, 『詩創造』第8期(1948), 『“九葉詩人”評論資料選』29-31쪽.

34)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李斌, 「抗戰結束後郭沫若對沈從文的批評」,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2013년 제7기) 참조.

천을 펑즈(馮至), 다이왕수(戴望舒), ‘한원집 세 시인 漢園三詩人’, 신디 등에 이르는 한 갈래와 아이칭(艾青), 텐텐, 뤼위안 등의 다른 갈래가 이룬 성과임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의미 있는 혁신은 “엄숙함과 진지함”에서 나온 것이며 “시대”와 “예술적 양심”에 충실한 결과임을 강조했다.³⁵⁾

『중국신시』는 또한 엄혹한 당대 중국의 상황에서 “전투적 의미가 가장 풍부한 현실”을 포용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강렬한 인민 의식”과 예술적 표현으로 채워갈 것을 다짐하면서 “과장된 선전주의”나 시류에 편승하는 “투기적 ‘농민파(農民派)’”나 “소심한 중국식 ‘유미파(唯美派)’”와 자신들을 철저히 구별하려 했다.³⁶⁾

일찍이 낭만주의적 감정 과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 구호에 가까운 거친 관념을 시에 이식하는 1940년대의 문제에 주목했던 위앤커지이는 낭만과 현실의 혼합으로부터 시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낭만과 현실이 혼재된 ‘정치감상성’은 어떤 반동파의 음모적 이론보다 ‘시의 정치성’에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정치감상성’은 중국 시에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 폐해는 심각한 질병의 수준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결코 시의 ‘정치성’이 아닌 매우 관념적인 그 무엇으로, 작가가 어떤 관념을 감상적으로 수용하고 표현하며 관념의 간판을 빌어 사상과 감각의 무거운 짐을 감추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병폐라는 것이다. 사상 감각을 연마하지 않고 자아와 정서 감상이 과도하게 대치함으로써 개성은 사라져 버린다. 이런 작가들은 타인의 표상과 상징을 차용하고 한 가지 형상으로 천만 가지 형상을 대체함으로써 창조적 빈곤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명’은 반드시 ‘희망’을, ‘폭풍우’는 ‘혁명’을 상징하며 ‘어둔 밤’은 언제나 반동파의 억압을 의미하는 것이다.³⁷⁾ 이런 식의 도식화는 무엇보다 “시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인바, 한 가지 이론이나 창작방법으로 “다른 것을 청산”하려는 시도야말로 “독재와 비민주”일 뿐이니 “많은 논자들이 정치적인 현대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면서도 문학에서는 원시화와 비민주화를 견지”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

35) 唐湜, 『豐饒的平原—『手掌集』詩評』, 『詩創造』第9期(1948), 『“九葉詩人”評論資料選』 360쪽.

36) 杭約赫, 唐祈 『“中國新詩編輯室”-黎明樂隊』, 『中國新詩』第1集(1948), 『“九葉詩人”評論資料選』 364-365쪽.

37) 袁可嘉, 『論現代詩中的政治感傷性』, 『益世報·文學週刊』(1946), 『論新詩現代化』 52-56쪽.

다.³⁸⁾

당스 또한 1940년대 중국 시단에 만연한 천편일률적인 언어 기교와 경박하고 표상적인 사회현실의 결합, 저널리즘 식 혁명스토리의 남용 등을 개탄하면서, 인민의 낙후한 의식과 저급한 취미에 영합하고 오히려 인민의 생활과 자각 역량을 악화시키면서도 ‘농민문학’ 혹은 ‘농촌으로 가자’를 외치는 자아 도피적 경향을 비판했다. 그들의 시는 구어(口語)의 중첩적 퇴적, 지루하고 무기력한 서술, 사족(蛇足)에 불과한 교훈을 기계적으로 그러모아 사대부전통의 노예적 악취를 풍기며 형식주의 논리로 모든 문화적 성과를 독점하려 한다. 그러나 『중국신시』는 인민의 삶 속에서 역량을 획득하고 인민의 생활의식을 논리적으로 제고 순화하며, 모든 고통스러운 외침과 절망의 몸부림을 직시하고 굳건한 심리와 사회생활의 교착을 비극적으로 표현한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결합 때문이 아니라 변증적 사색에 익숙지 않은 천박하고 타협적인 중용주의, 직선적이고 표상적인 사상의 저능함, 자기만족적인 아큐(阿Q)주의 때문이다. 『중국신시』는 역사발전의 필연성 위에서 세계사상과 시적 전통의 발전이라는 논리적 필연성을 수용한 ‘신생 新生’의 힘이다. 『중국신시』와 소위 ‘인민시 人民詩’의 차이는 문학 기교나 표현수법의 활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존재 의의에 있으니, 머리를 쓰지 않고 기성품만 찾으려 고난을 이겨낸 진실한 승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포기를 모르는 『중국신시』의 의지 앞에서 현기증마저 느끼는 것이다.³⁹⁾

『중국신시』는 ‘모종의 독단적인 교조에 근거하여 ‘이미 정해진 노선’만을 고집하는 ‘문학통일론자’들의 헛된 꿈에 맞서는 ‘남북 청년의 파격적 합작’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 ‘광활하고 자유로우며 우수한 결과물을 수확할 수 있는 희망’이었다. 문학적 견해차를 인정하지 않는 편협한 태도, 정치적 열광을 빌미로 한 자기 진영 감싸기, ‘다른 당파’에 대한 마구잡이식 공격과 특정 꼬리표 달기, 시끄럽게 떠들어 알맹이 없는 내용 덮어버리기 등으로 인생의 의미를 전면적으로 부정

38) 袁可嘉, 「詩與民主」, 『大公報·文學副刊』(1947), 『論新詩現代化』 40-41쪽.

39) 唐湜, 「論『中國新詩』—給我們的友人和我們自己」, 『華美曠報』(1948), 『“九葉詩人”評論資料選』 7쪽.

하는 ‘맹목적인 적대의 중병’⁴⁰⁾은 『중국신시』에 의해 치유되어야만 했다. 예술과 현실 사이의 평형을 추구하면서 결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독립적인 예술의 생명을 향유하는 시, 『중국신시』의 ‘새로운 방향’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좌파의 용단폭격에 맞서는 ‘중국신시’파의 대응은 정교하고 논리적이었지만 바로 그것에서 기인하는 그들의 자부심과 상대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심리 또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이들의 전투가 더욱 막강하고 무자비한 세력에 의해 중단되지 않았다면 논쟁은 다른 귀결에 이를 수 있었을까? 1948년, 역사의 무수한 우연성에도 불구하고 국공의 대립은 필연적 귀결을 향해 치닫는 중이었고 ‘중국신시’파의 패배 역시 자명해 보였다.

3. 결론

『중국신시』를 둘러싼 1948년의 논쟁은 혁명문학논쟁 이래 각종 문예논쟁의 소모적 대립 양상을 되풀이한 것이었다. 논쟁의 당사자들은 모두 자기 정당성을 확신했지만 문학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근본적인 사고의 차이는 논쟁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오래고 복잡한 문제였다. 좌파의 목적은 민주와 자유의 허구적 이상을 선전하는 자유주의 문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궤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논쟁 과정에서의 정교한 이론 제시나 논리적 완결성은 처음부터 고려의 요소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총공격에 대응하는 ‘중국신시’파의 진지함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좌파의 전략에 맞설 수 있는 조직 역량이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중국신시’파는 이론적 우월성과 문학적 소양을 자기 정당성으로 삼았지만 애초에 논쟁은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1948년의 정치 군사적 상황은 이성적이고 냉정한 논쟁의 조건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신시’파는 시의 현대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

40) 袁可嘉, 「詩的新方向」, 『新路週聞』 第1卷 第17期(1948), 『論新詩現代化』 219-220쪽.

고의 중요성, 특정한 정파적 목적에서 탈피한 순수한 예술적 논의의 필요 등에 관해 의미 있는 주장을 하였지만 전 중국 통치의 권한을 놓고 국공이 대립하는 극도의 긴장 국면에서 진정성 있는 논쟁은 불가능했다.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독자층 역시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중국신시』에 맞선 세력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확했다. “생활이 시”고 “전투가 시”라는 “움직일 수 없는 원칙”에 입각할 때, 『중국신시』는 “건강하지 않은 색소” “말라비틀어진 화초” “썩어문드러지고 독이 든 열매”임에 분명하며 그것은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시단에서 제거”되어야 했다.⁴¹⁾ 논쟁은 출판사 폐쇄로 끝나버렸지만 이 악의에 찬 저주는 쌍백운동과 반우파투쟁, 문화대혁명 등을 통해 철저히 실현되었다.

첸리권이 말했듯이, 대다수 중국 지식인들이 정도는 다를지라도 돈키호테 기질에 물들어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중국신시’파의 햄릿 기질은 분명 ‘시대를 앞선’ 남다른이었다.⁴²⁾ 그러나 ‘칠월파’ 역시 그들의 단순함과 단호함으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중국신시’파 시인들은 오히려 ‘시대를 앞서 감’ 때문에 강제로 잊히고 자신들이 선택한 ‘풍부한 고통 丰富的痛苦’을 견뎌야 했지만, 그들은 영원히 망각되지는 않았다.

〈參考文獻〉

『“九葉詩人”評論資料選』,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6년.

『九葉集』, 江蘇人民出版社, 1981년.

袁可嘉, 『論新詩現代化』, 三聯書店, 北京, 1988년.

쉬지린 지음, 송인재 옮김, 『왜 다시 계몽이 필요한가』 278-279쪽 참조. 서울, 글항아리, 2013년.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1』 78-79쪽 참조. 서울, 이산, 2004년.

41) 徐波, 「評“中國詩歌”」, 『新詩潮叢刊』第4集 『理論與批評』, 1948년.

42) 錢理群, 「1948年: 詩人的分化」, 『文學理論研究』(1996年 4期) 43쪽.

- 은유민 지음, 김수영 옮김, 『현대 중국의 현실주의 문학사』,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1년.
- 錢理群, 「1948年: 詩人的分化」, 『文學理論研究』(1996年 4期), 上海, 中國文藝理論學會, 1996년.
- 李斌, 「抗戰結束後郭沫若對沈從文的批評」,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第7期, 2013년.
- 陳旭光, 「永遠的“哈姆萊特”—論一類中國現代知識分子的矛盾心態」, 『海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海南, 2003년.
- 韋泱, 「從“詩創造”到“九葉詩派”」, 『新文學史料』第4期,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2011년.
- 新華社 「部隊政治工作新武器—華中創“槍杆詩”運動」, 『人民日報』, 1948년.
- 默涵, 「評臧克家的“泥土的歌”」, 『大眾文藝叢刊』第1集『文藝的新方向』, 1948년.
- 力揚, 「論敘事詩」, 『新詩歌叢刊』第8集『被壓迫的行列』, 1948년.
- 張羽, 「南北才子才女的大會串—評“中國新詩”」, 『新詩潮』第3集, 1948년.
- 沙鷗, 「一個對比—關於袁可嘉及第二年度的“詩創造”」, 『新詩歌叢刊』第10集『顆顆送給子弟兵』, 1948년.

<Abstract>

The Conflict between the Poetry and the Warrior
- A Study on the 『Chinese New Poetry』

Kim, So-Hyun

This i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Nine Lives’ school(‘Chinese New Poetry’) activities. Eight poets, except ZhengMin, have died, but they have left a deep footprint in the history of modern Chinese poetry. Its main publications are 『Poetry creation』 and the 『Chinese New Poetry』.

They were attacked by opponents as they shared ideas and artistic ideals. It was an unconditional and overall rejection of the liberal tendency to claim the diversity of literary arts. They were excellent in theory and creativity, but their real influence was not great. Their theory insisted on the modernization of poetry, democratic thinking, and pure artistic discussion. But in the fac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Kuomintang opposition, genuine debate was impossible.

Since the fall of 1945, the Chinese Democratic Alliance has gathered power and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olitical negotiations. Their flag was liberalism. The 'Chinese New Poetry' school responded to the attack of the left and maintained a moderate stan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 brief review of the misfortune of young poets who had to wage a fierce ideological war. They were forcibly forgotten because they were ahead of their time, but fortunately they were not forgotten forever. The publication of the 『Nine Leaves』 in 1980s is a response to the new evaluation of the 'Chinese New Poetry' school.

Key words: the 'Nine Lives' school, 'Poetry creation', 'Chinese New Poetry', the modernization of poetry, democratic thinking, pure artistic discussion, liberalism

이 논문은 2018년 7월 13일에 접수되어 2018년 8월 1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8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